

위대한 김일성 -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김정은동지 만세!

제 189호 [루계 제 24602호] 주제 103 (2014)년 7월 8일 (화요일)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이 땅에 생을 둔 남녀로소 모두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 민족의 아버지를 절절히 그리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남녘인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조선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하늘이 낸 결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가슴속이 고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인상이 우리 인민과 온 겨레,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진 나날이었으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기는 바뀌었지만 이 땅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흘렀으며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만년제보로 빛을 뿌리었으며 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상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천만군민을 영웅적투쟁과 승리로 고루해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과 신뢰심은 사상과 정견, 피부와 언어,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적판도에서 세차게 분출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을 자주위업의 위대한 개척자, 걸출한 령도자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더없이 진실하고 절절하였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권위는 절대적이며 영원불멸하다는것이 지난 20년 력사의 빛나는 총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리리따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써 수난담고 폭절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나지 않았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온 누리에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류력사가 자주화의 시대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전인민당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창조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혁명은 개척의 첫 기슭에서부터 사소한 험악함도 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전진할수 있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자의 삶을 빛내어올수 있었으며 모진 풍파속에서도 인위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생애는 20세기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가, 불굴의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었다. 두 제국주의강적과의 피어린 혁명전쟁과 철혈한 사회혁명을 비롯하여 류레없이 복잡다단한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스러운 혁명실적으로 빛나고있다. 이 세상 교생이란 교생은 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더없는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시며 혁명령도의 전 로정을 강철의 신념과 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시키신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세상에는 이들을 남긴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같이 10대의 어린신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년대들을 자랑스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인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수령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영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위대한 영웅을 밝히는 불멸의 혁명사상과 함께 영생하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에게

주체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는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성이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 되었으며 그들이 나아가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시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들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라침판이었고 백승의 기치였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승리하며 전진해온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오늘의 21세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은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무한대의 전진력을 발휘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이 그렇듯 활력에 넘치고 백두산대국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한것이다. 세계적으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늘어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의 력사적미래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는데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철리를 뼈에

새기었다.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천이고 만년이고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만년토대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시었다.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후손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후손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뚫고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0여성상 만년고초를 겪으시며 이룩하신 고귀한 천위물들과 창조물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강적도 우리 공화국을 봉괴시킬수 없었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끊어놓을수 없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류레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의지와 승리로, 새 세기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보폭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후손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과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대대손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있어서 우리 인민은 가장 훌륭한 스승, 동지였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운명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시는 삶의 태양, 위대한 아버지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류정치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졌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소탈하고 겸박하게 생활하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만측도 모르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 를 타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신 아버지수령님의 현저도는 오늘도 진실같은 인민사랑의 서사시로 천만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열화같은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한 한심술, 한가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마다에 민족제생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가장 자애롭고 친근하신 아버리로 깊이 새겨져있다. 혈연의 정으로 맺어지고 장구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이 땅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 리이다.

억척같이 다져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사이의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영원불멸한것이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해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수령영생위업, 이것은 백두산혈통이 꽃이 이어지는 우리 조국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성스러운 위업이며 우리 인민모두가 끝까지 계승해나가야 할 민족만대의 위업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시원이 열리고 고귀한 전통이 마련된 우리의 수령영생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더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총정과 고결한 도덕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으며 대원수님들의 뜻과 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날것이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새긴 철리이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7월 8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경건히 추모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지금 불타는 맹세가 고동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진군로이며 백진백승의 진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오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고 하여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이 땅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 리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지니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지며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군관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를 적극 따라배워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뉠치게 하고 자본주의를 압도하는 사회주의승리의 합심기 락으로 크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수평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선을 한마음한뜻으로 총지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신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기어오르는 명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을것이며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온 누리에 펼쳐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과 영광,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0돐을 맞이하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

으로 하여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이다.

탁월한 사상리론가, 결출한 평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그 어떤 강적도 당대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 바 구 니 의 맹 기 에 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밭이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백두산대국의 힘이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뜻과 정, 운명을 함께 하는 총대동지, 총대전우가 되어 최고사령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각하게 이 전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서거하신 날을 숭엄하게 돌이켜보면서 각하와 가장 진실한 감정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영원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을 언제나 견지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각하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포함합니다.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바 샤 르 알 아 짜 드

2014년 7월 6일

디마스끄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오스트리아, 메히코, 페루, 나이지리아에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폰스판만 로마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정치가이다.

주석의 서거는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손실이며 아픔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선량당 전체 당원들은 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책임자 토마스 피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미일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메히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베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빛내여주신 인민의 어버이이다.

또한 조선은 그 어떤 강적도 당대에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시킨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신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부 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할것이다.

페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 길에르모 알파르 리베라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주석은 한평생 근로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신 인민의 수령이실뿐 아니라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다.

또한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인이다.

조선혁명은 김정은원수님의 평도 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다.》 김정은

인민은 그 사랑 못 습니다

잊지 못할 20년이 흘렀다. 이 불멸의 년대들에 우리 혁명은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헤쳐오며 우리 조국은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는가.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 사회주의붉은기를 지켜내며 강성국가건설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우리 조국, 력사의 한복판에 뚜렷한 승리의 자욱을 새기며 노동처음 붉은기대오에 뜨겁게 굽어친 하나의 전인민적사상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이인위천의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수놓아 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었으며 수령님은 인민의 아버이로 영생하신다는 철칙의 신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정립하시고 참다운 인격적치를 베푸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피시었다.

남아주고 보살피주며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부모의 사랑도 한가정울타리를 벗어 못 나고 한생을 넘어 못하는 한계가 있다. 허다한 천체 인민에게 존엄을 삶은 주시고 사랑의 한복에 안아주시였으며 그 존엄, 그 영광을 후손만대로 이어주시는 위대한 인민의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훌륭한 관념과 입장을 확립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억연 드물지 않을 존엄과 권리를 안겨주시는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시다.

항일투쟁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우리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수도의 밤

본사기자 김철우 특음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천도교도 정 박인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인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인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자주시대를 펼쳐주시어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로 올려세우시

었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전인민적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인민이 하늘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해주신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력사의 창조자였지만 오랜 세월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천대와 무런리속에 살아온 인민대중, 사회발전의 수혜비위를 둘러 면서도 노예와 신분적에속의 멍에를 벗지 못하였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대중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확립하시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시대를 펼치며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

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인민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꿈을 마련해주신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언제나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웅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인 로동생

활과 행복한 물질생활,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정치경제문화제도가 바로 인민의 영원한 삶의 품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이런 인민의 사회를 건설하시어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 십년동안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싸우시었고 주체의 기치높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국주의자들이 세브에 들리고 압박을 가할 때에도 우리는 세브에 들지 않고 자제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결지하시었다. 국가주권도 생산수단도 다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어있고 전체 인민이 무로교유, 무상치로제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받으며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불굴의 의지와 헌신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당도 군대도 정권도 인민을 위한 어머니당, 인민의 근대, 인민의 정권으로 건설해주시고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혁명실천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당대에 다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같은 인민의 아버이는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격적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은 물론 출신성분과 사회생활경위 복잡한 사람들도 품에 안아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폭넓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였다. 언제나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명절날, 휴식일도 가림없이 공장앞 농촌, 건설장을 쉬임없이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가서선물옷을 입고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시고 나보다 더 신사로우구만라고 기뻐하시며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새옷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시고 80도령에도 서로앉공장의 냄새나는 지렁이서식장과 닭우리들을 주체적으로 돌아보시며 생산을 늘일방도를 의논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어린이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여주시고 노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여주시였으며 생활적인 말씀도 하시고 통달과 유모아도 하시며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정말 성인중의 성인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그처럼 못 잊어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아버이로 높이 모시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과 고매한 품모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치지도자들의 삶과 투쟁의 귀중한 교파서로 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인민의 친근한 아버이 되시어 정과 열을 다하여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인민은 어려운 속에서도 존엄높고 값높은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이 땅에서 인민의 품과 리상이 실현되는 빛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인위천의 리념과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시고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영원히 못 잊어하는 우리 인민이기에 김일성대원수님은 인민의 아버이, 인민의 태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본사기자 정 선 철

도서 《인민들속에서》가 전하는 사연

인류 력사의 갈피에는 인민을 위하여 쓰여진 위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의 모든 날과 밤, 순간순간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헌신으로 수놓으신 그토록 절충한 위인, 인민의 아버이는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도 널리 읽히고있는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한평생을 인민들속에서 계시며 인민과 뜻과 정을 나누시고 그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아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애민의 사상과 인민적정품모에 대하여 진실하게 격조높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의 한평생을 총화하시어 그리움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 것인가.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니다.》

푸르러 설매는 한그루의 나무, 푸게 피어난 한송이의 꽃을 보아도 아버이 수령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7월, 김일성평장을 지나면 우리는 《나라길 시작점》이라고 띄어있는 표식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라길 시작점, 때없이 앞을 오가면서 도 레사롭게만 보아오던 이 여섯글자가 7월의 이 아침 왜 그토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인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신는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조국의 방방곡곡으로 그물처럼 뻗어간 길들이 시작되는 나라길 시작점, 최북단의 온성으로부터 분계연선의 마을까지, 서해의 간척지대로부터 동해의 포구로 수없이 펼쳐진 길들이 뻗어나간 이 길에서 서고보니 언제나 있었던 하나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주제 51(196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첫 번이 출판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100여년에 무려 수천만부나 발행된 도서 《인민들속에서》.

제목이 그대로 말해주는 것처럼 도서는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이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진행하신 혁명활동에 대한 생동한 회상 자료를 폭넓게 담고있는 인민적정품의 총서이다.

회상시기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합니다》로 시작된 도서는 아버이 수령님의 조국과 혁명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적, 만사람을 한복에 안아주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인민적정품모가 종합적으로 수놓여있다.

새 조국건설로 돌입한 해방직후와 거창한 전회의 나날, 전후복구건설시대의 사실이 들려켜진다. 양강도에 대한 취재를 위하여 평양을 떠난 우리가 후지평마루에 올랐을 때였다.

구름이 가파로운 길을 따라 흰 구름이 손에 닿을듯있는 평마루에 올라 잠시 휴식을 하는데 우리가 동행하였던 한 일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곳에도 아버이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웠습다. 수십년전 우리 수령님께서 산세가 험하기로 이름난 이 평을 넘으시어 항강평을 찾으시고 고산지대의 인민들이 잘살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습니다.》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평마루, 지난날 화진민들과 살길찾아 고향평을 뒤 에 두고 떠나는 인민들의 구슬픈

기를 비롯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서 깊은 분야와 장소는 그 한계가 없었는 때로는 인민군인들속에서, 때로는 로동계급과 농민들속에서, 때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서 계시면서 온갖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아버이 수령님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안은 사람들 모두가 그의 위대한 사랑과 고매한 품모에 매혹되어 끓어오르는 감정을 앞을 다투어 토로하였다.

인류 력사에 걸출한 명인들과 정치가들을 찬양하는 책들은 많지만 도서 《인민들속에서》와 같이 평범한 인민들이 자기 수령의 위대함을 하늘과 바다와 태양에 비기며 평범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적, 만사람을 한복에 안아주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인민적정품모가 종합적으로 수놓여있다.

이것이아말로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과 더불어 이 땅우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 기적의 한송이로만 들려오던 이 평길에도 인민을 위한 아버이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것이었다.

어찌 후지평일까.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진창에 빠진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찾으셨던 북방 길이며 농장원들도 아직 잡에서 깨어

력사를 펼쳐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받으실수 있는 전인민적승리가 아니겠는가.

세상사람들이여, 우리 조국의 존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예가 어떤 뿌리깊은 력사에서 마련된것인가를 알려면 도서 《인민들속에서》를 펼쳐보시라.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끄떡없이 선군혁명업, 강성국가건설업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의 심장속에 과연 무엇이 간직되어있는지 그 한진한진의 회상실기들이 다 전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계시며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사랑과 믿음으로 만민을 끌어안아 보살피시고 키워주시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아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은 조국과 더불어, 인민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이 해방된 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반세기동안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도로정의 총원장님이이다.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0여번 왕복한것과도 같고 지구를 14바퀴만이나 돈것과도 맞먹는 이 머나먼 길을 이어가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무려 2만 600여개 단위를 현지도하시였으니 그 길에서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는 얼마나 크시었을까. 이른 새벽에도, 길고요로운 밤에도, 눈비내려도, 찬바람 사정없이 몰아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찾아가신 이 나라의 길들, 정병 그것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학책개념이기에 전에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전하는 불멸의 로정도가 아니겠는가.

김일성평장의 나라길 시작점, 그것은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이 없는 아버이 수령님의 현지도의 한평생을 보여주는 력사의 표식비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한평생 걸고 걸으신 포전길

인민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것을 한평생 가장 큰 소원으로 간직하시고 이슬에 젖은 옷자락 마를새없이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일로 마음쓰신 수령님 같은 인민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끝없이 넓은 고향에도 광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이 현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주체농법을 창조하든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들려온다. 나는 농사를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찾지 위하여 농민들속에서 늘 거닐어다니고 만나고 뵈는 농사꾼들이 만나 어떤 날에는 반나절, 어떤 날에는 하루종일 담화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농경험을 많이 얻게 되었다. 나는 농민들로부터 농경험을

듣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해보면서 과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기에 이 땅에 내리는 새벽이슬도 제일먼저 맞으시며 농장법을 찾고찾으신 아버이 수령님.

부지런한 농민의 심정으로 손수 지렛의 시험포전에서 복식을 가꾸시며 농사방법도 터득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진실같은 이야기는 얼마이며 멀고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남기신 가슴겨운 사연들은 그 얼마였던가. 해방의 기쁨안고 맞이한 토지개혁의 그 나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50년세월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늘 농장법에 계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뜻깊은 날 어느 날같이 인민들에게 농사에서 큰 운을 불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붓을 드시어 수려해진 우리 나라 농촌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신 우리 수령님의 마지막현직 지도도 농장이었으니 세상에 나이가 많고 나약하다 평도자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 우리 수령님과 같이 그처럼 위대한 인민의 아버이가 또 있었는가. 아버이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뜨겁게 메아리쳐온다.

모든 농민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이면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으로 된다.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것이다. ... 수천년 꿈속에서나 바라던 우리 인민의 넘칠만 하도록 실현시켜주시는것을 자신의 가장 큰 념원으로,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은 오늘도 이 땅우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평사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날 아버이 수령님께서는 병사용신 발사제품도 보아주시며 아주 잘 만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만듦에 있어도 새겨 놓았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이처럼 정교화적면모로 세상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복장에 있어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과 현명한 평도가 뜨겁게 깃들여있다.

진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병사들을 위하시어 아버이 수령님의 사랑이었다. 오늘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아버이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인민부대들을 찾으면서 한없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끝없는 선군정정의 길에서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병사사랑의 전설이 매일과 같이 태어나고있는것이 바로 내 조국의 현실이다. 대동강구역 육류2동 서동호

나라길 시작점 앞에서

나지 않은 이른새벽 찬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며 걸으신 농부령길... 인민이 사는 곳이라면,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곳은날, 험한 길을 가리지 않으시고 현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욱이 새겨지지 않은 길이 또 어디 있었는가. 우리 다는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어가신 이 길들이 얼마나 멀고 험하였는지. 144만 5천여리,

본사기자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우표들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표들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에는 인민위원의 송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0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회고무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로동계급》이 7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맹원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회세의 정치인로,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회고무대는 합창 《있지 못할 우리 수령님》으로 시작되었다.

무대에 나선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을 일으켜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은 수천년 우리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 시기 로동계급의 대중적혁명조직건설의 귀중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해방직후 직업공직을 무어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명도명도대로 로동계급과 직업공직은 새 민주주의 건설시기로부터 가련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당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회고 무대

수령을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 왔다고 말하였다.

한없이 송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당당한 주체로, 나라의 말아들로 내세워주시고 애없는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은 절세의 애국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녀성소합창 《그리움의 대하》, 남성독창 《노래하라 만경대갈길이며》, 녀성2중창 《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네》, 녀성중창 《우리 수령님》, 남성5중창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녀성독창 《장군님생각》, 혼성2중창 《선군소리 울려야》 등의 총무들이 울려 퍼지자 장내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설레었다.

로력영웅들인 천리마재강원합기소 연구사 리계경, 선군편지공작 초급당비서 강충실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만나

원장 합창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우리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수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모도 없이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견단검의 성새가 되어 결사옹위하며 당의 명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고무대는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외국선박선원들의 김일성주석회고모임 진행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이날에 즈음하여 전세계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의 고귀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회고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

청천강전역에 울려 퍼진 그리움과 총정의 메아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의 회고음악회 《영원한 우리 래양》을 보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수백의 청천강전역 건설자들의 회고음악회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래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유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현장지휘부에서 진행된 회고음악회에는 정치일군들을 포함한 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모두가 젊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출연하였다.

음악회는 합창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설화시 《위대한 영생》, 합창 《있지 못할 우리 수령님》으로 시작되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설화시가 낭독되고 손총금반주의 은은한 선율이 맞추어 위인칭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출연자들은 한세기에 두세 세대의 울림을 때려부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혁명을 일떠세워주시신 주체의 애국자이시며 사회주의 건설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선박선원들과 해외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7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용화동지의 가족일행, 단마르크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

수도시민들을 위한 첫 과일수송대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는 가운데 경애하는 현수님의 은은어린 조리로 수도

박봉주 총리

평안북도농사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께서는 정주시 칠항협동농장과 온건군 율해협동농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분별 조정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김일성종합대학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7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꾸려진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첫 인민

우리 나라 설경선수 2014년 울란바타르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울란바타르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설경선수 3명 중 1위를 쟁취하였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인 케이몬드 퍼그손 공동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한 오세안 지역회고위원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알제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영화감상회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주체사상》, 《태양총총의 만년재보》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나이지리아 요배주 농업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주의를 지니시고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 새 사회건설을 물질방면으로 적극 도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태양이

오세안지역회고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회장을 찾은 손님들이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에 오세안 지역의 승리를 위해 불멸의 한생을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서사시

이 나 라 인 민 은 말 한 다 !

차 영 도

머 리 시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이 땅에
아프게도 흘러간
스무해세월을 부여잡고
조용히 부르고싶은 노래가 있다

오늘도 수령님을 못 잊어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있는 인민
이어
그날의 그 푸레죽과 빈봉투를
우리 수령님
한생토록 마음에 안고계셨으니

메마른 땅을 굶어오던
밭고랑의 호미소리 저 멀리 밀어
내며
뜨락뜨락의 동음 앞세우고
공업국가의 억센 기둥이
하늘을 치받으며 솟구치던 년대

인민밖에 모르셨던 장군님
그 인민의 행복을 지켜 운명을
지켜
그렇게도 고생 많으셨던
인민의 장군!

세계의 광심앞에서
오만하고도 기고만장한
미제국주의의 등뼈를 꺾어
밭밀에 딛고 서신 회세의 장군

쉬임없이 걸음 다루쳐오신분
그이름
세상에서 제일로
아이들을 귀여워하신다
극진히도 사랑하신다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그 기슭에서는 사랑의 바다앞에
인민이어
우리 어떻게 감사의 인사
삼가 드려야 하느냐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 돌보
시네
수령님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
련만
오신 길 또 오시여 사랑만 배부시네

이 세상에
일만락이 있다한들
어찌 그날의 그이의 마음속시를
한시인들 풀어드릴수 있었으랴

우리 수령님
그것이 락이요 기쁨이어서
10년은 더 들어진다고
늘 외우시며
로고에 찬 그 길 쉽없이 서두르시던
년대

아, 이날토록 이 땅에서
인민을 품안아 지켜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사무치는것인지
강산에 눈내려도 장군님 생각
강산에 비내려도 장군님 생각

정말로 그이름
반만년력사국의 존엄을 걸고
찬란한 태양의 해빛으로 눈부신
이 나라 백두성산의 머리우에
핵보유국의 문패를
높이도 받들어올린 절세의 애국자

우리 혁명은
미래를 위한 혁명
세월을 거슬러오르면
저 멀리 백두산의 기슭엔
잊지 못할 마안산의 이야기가
있나니

아, 인민!
그이름에 있어서 인민은 조국
그이름에 있어서 인민은 혁명
그이름에 있어서 인민은
이 세상 전부!

이 노래 부르면
절로 찾아드는 눈곱에
찌릿이 맺혀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여

하지만 세월이어
너의 그 무진한 힘으로도
가서드릴수 없었던
그날의 수령님의 가슴속 그 아픔
앞에
삼가 머리를 숙이랴

깊이어, 깊이어
인민을 위해 우리 수령님
산이 많은 땅, 령이 높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빠진 지평이자속은
너의 어느 령, 어느 굽이에 새겨져
있더냐

죽이고 불사르고 짓이기는
몸서리치는 대동란의 참화속에서
폐지어 고향을 하직하는
류랑민들의 그 가슴꺼지는 한숨
소리는
다만 국경밖의
먼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 강대한 이 나라
핵보유국의 아름다드리기동양에
그이 한생토록 벗지 못하신
한결의 소매땀은 야전솜옷
아프게 포개놓고
눈곱을 적시는 인민이어

《미래를 사랑하라!》
생눈을 썬으며
꽃뿌리를 썬으며
우리 수령님
혁명앞에 높이 드시었던 이 구호

행복이 넘치는 집집의 창가에서
아이들이 웃는다
햇살은 아침의 조선이 웃는것이다
강성할 조선의
창창한 앞날이 웃는것이다

무엇이기에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초월같이 태우셨고
오늘은 우리 원수님 낫도 없이
밤도 없이
그 길에 온 심신을 다 바치셔야
하느냐

눈두령의 새벽이슬 가릴 사이없이
내리는 찬 눈비 그을 사이없이
오로지 인민위해
한평생 걸으신 그 먼길

정녕 깊이어
끝간데 없이 뻗어 간 그 많은
깊이어
오로지 인민의 복락을 위해 우리
수령님
명석깔고 앉으셨던 마당은 어디
꽃강님이 한이삭으로
끼니를 에우신 곳은 또 어디

장군님이 계시었기에
언제나 머리우에 이고 사는
하늘이
가없이 푸르려있었던 내 나라
그 맑은 하늘을 위해
장군님의 야전복자락
언제 한번 눈비에 마를새 없었
으니

우리 억만대를 두고두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한생을
잊지를 말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영원히 번영할
내 나라의 푸른 하늘들에서
깊이깊이 추억하며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잊지를
말자!

그것이 이날까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을 안아온
가장 귀중한
전통이였고
의지였으니

자본주의를 끝끝내
땅바닥에 눌러두고
전상에 높이 올라선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웃는 소리다

무엇이기에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초월같이 태우셨고
오늘은 우리 원수님 낫도 없이
밤도 없이
그 길에 온 심신을 다 바치셔야
하느냐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겨웠는지
수령님 걸으신
비내리는 농장길에 물어 어이
알며
밤깊은 령차의 차창에 물어 어이
알랴

부락컨데 깊이어
새길 수록 가슴젖는 추억깊은
깊이어
너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소원을
알거든
길가의 이슬젖은 숲속에
부디 꽃 한송이라도
정히 피워다오

철령엔 왜 해마다 봄이 오면
철쭉꽃이 그러도 많이 피는지
꽃이서서 왜 붉은 일세에
맑은 이슬이
피방울같이 맺혀 흐르는지

이 나라 인민은 뵈오며 사노라
그처럼 그리운 우리 수령님
우리의 원수님의 환한신 모습에서
뵈옵고 또 뵈오며 사노라

그이름
아이들의 두볼을 만져주신다
그 손길속에
이 나라 아이들의 영두볼은
꽃보다 더 곱다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평생에 갈을길 잃는
그 은혜
누우면 배개잇을 적시고
한밤중 잠을 깨어도 가슴사무쳐
오는
인민의 이 송구한 마음

우리 수령님
홍남은 왜 그리도 자주 찾으셨고
찾으시어선 마치 옥백미를 손에
취시듯
쏟아지는 비로를 왜 그리도 반가이
줍에 드시고 농지를 못하셨던가

그 꽃 송이송이
인민의 마음인양 피고피여
수령님 이 땅에 남기신 불멸의
자속
후손만대를 두고
꽃속에, 피는 꽃속에
부디 간직케 해다오

전선길 걸으셔도 인민을 위해
험한 령 넘으셔도 인민을 위해
아, 그 길이
어찌면 그렇게도
멀고 험난했더냐

우리 억만대를 두고두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한생을
잊지를 말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영원히 번영할
내 나라의 푸른 하늘들에서
깊이깊이 추억하며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잊지를
말자!

그이름
아이들의 두볼을 만져주신다
그 손길속에
이 나라 아이들의 영두볼은
꽃보다 더 곱다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아, 내 오늘
못 잊을 그 헌신의 자욱
어디라 없이 뜨겁게 새겨진
이 나라의 강토를 붙안고
인민의 이름으로
추억의 이 붓을 삼가 드노랴

미국놈들이
악착스레 퍼부는 폭탄에
철물만이 앙상하던 이 공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아, 비료!

오, 인민의 추억속에
인민의 그리움속에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태양으로 영원히 계열
위대한 김일성동지!

소슬한 바람결에
있었을 혼드는 철쭉을 보면
선군장정의 증견자 너 철령을 넘으
시며
장군님 하시던 말씀
오늘도 귀전에 메아리친다

그 해빛
하도 밝고 따뜻해
아침의 강산에
약동하는 젊음이
그리고 싱싱한 아, 이 조선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부모의 타는 가슴에 앉은 제
한지붕뿔의 자식이 다 모르듯
수령님 가슴에
평생토록 없던 시를
인민이 어이 다 알것이나

이 나라의
밭머리와 이랑마다에서
인민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협동벌이 안타까이 기다리는 비로
다시는 나이런 농장원처녀에게
빈봉투를 쥐어주지 않을 그 비로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그 해빛
하도 밝고 따뜻해
아침의 강산에
약동하는 젊음이
그리고 싱싱한 아, 이 조선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오로지 인민을 위한 그 길에서
가슴속 일만시름 깊이도 묻으시고
긴긴세월 하루같이
내리는 비도 물랐고
내리는 눈도 모르신 우리 수령님

수령님 너무도 기쁘시여
온갖 시름 다 잊으시고
신고산라령을 흥겨이 부르시
였랴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이 나라 인민의 추억속엔
우리 수령님
그 고생 많으신 날과 날중에
오늘도 잊을수 없는
참으로 아픈 날이 있나니

온다야 온다길래 동구밖 큰길에
나갔더니
자동차에 가득가득 흥남비료가
오누나
...

수령님 말기고가신
인민이어서
수령님 것처럼 사랑하시던
인민이어서
세월끝까지 품안아주시려
억척같이 깨안고계신 장군님!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들마다 마을마다
만풍의 노래속에
어디서나 수령님을 기다려
홍뜨는 마음 앞세우던 그날

아, 우리 수령님
날져무는 그날 그 저녁에
또다시 먼길 떠나셨으니
판개수 물결 여는 공사장을 찾아
뜨락뜨락 쏟아지는 공장을 찾아
산 넘어 들 지나 가신 그 길이
이 땅 이 강토에 몇천몇만리나
되더냐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그이름
필요한 들을 지나
웃음꽃 피어나는 집집을 지나
이 나라의 마지막 가난이 응크린
외진마을을 기별도 없이 찾으셨
으니

더듬을수록
새겨볼수록
눈곱이 지러드는 길
뒤돌아보려 해도 돌아보려도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 그 길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아직은 집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어느 한 집 솜부정을 손수 여시고
그속에 걸린 푸레죽을
이윽도록 바라보신 수령님
말없이 문을 나서신 그이의 젖은
시선에
아, 하늘의 해가 보이지 않으셨다

세월이어
이 땅에 굶어오던
그 헌신의 장장 천만리에서
인민이 품같이 맞은
복받은 생활의 년대들을
생생히 추억해다오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피를 바쳐 나라를 찾으면
이국땅 거친 들에 랑친부모 묻으신
그 가슴어이는 한을 풀어
금수강산삼천리에 금방석 고이
엮어
이 나라의 마지막농가에 이르기
까지
극진히도 돌보시려던 수령님!

수령님 덕에
풍성한 밭상에서
배부른 아이들이 밥알볼은 량볼에
밥술을 떠받으며 좋아라 웃을 때
생각깊은 어머니들이
말없이 눈곱을 찍던 년대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은 나라에
인민의 행복이 차고넘쳐도
이 한결의 지붕아래
아직도 남아있는 가난의 흔적에
수령님 기가 막히시여
이름모를 한 농장원처녀에게
며칠전에 받은 현금분배
가슴이퍼 물어주신다

사회주의농촌체제의 빛발아래
농악소리 풍년벌에 그칠새 없고
양지바른 언덕에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들에선
도시처럼 새각시로
분주히도 맞아들이던 년대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어찌나 허물없이 물으시는지
나어린 처녀 그만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굴에 두손받쳐 정히 드렸던
령 빈 분배봉투!

로동이 노래라고
흥겨운 일터마다에서
복통을 때리던 그날은 언제더냐
곳곳마다 기적이 일고
간 곳마다 인민의 노래소리
차고넘쳐던 년대

이 땅에 해마다 7월이 오고
7월이면 강산을 뒤덮는
그리움의 꽃물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영생
그 꽃속에 그 만발한 꽃바다속에
깊이깊이 기원해다오!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이제 아이들이
얼른잠간 어른이 되어
나라의 역군으로
내 조국 이 땅에서 행복을 가꾸며
손길뻗쳐 휘-휘 휘어잡을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여

모시라 인민이어
원수님을 부디 잘 모시랴
한몸다해 모시라 세월다해 모시랴
인민을 부르는 강토의 메아리어
이 조선의 메아리 끝없는 메아리어

말해보자 인민이어

조상대대로

한생에 오로지

오, 그이름

인류앞에서

그 끝모를 정의 바다

길이 변영하라!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을 하루빨리 성취하자

조국통일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애국업적

7월은 우리 겨레에게 가슴뜨거운 추억들을 불러일으킨다. 20년전 조국통일과 관련한 증대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탄흔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모습은 눈물겹게 인자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을 받아안던 42년전의 감격과 환희가 겨레의 가슴마다에 밀물처럼 가득차 오른다.

돌아켜보면 민족의 숙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신 지난 세기 중엽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명도사는 하나의 조선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생애였다. 그 역사적 로정에 불변불굴의 헌신과 로고로 이룩된 위대한 수령님의 거대한 통일애국업적을 우리 겨레는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념원이었다. 일찍부터 당국의 비유와 아름도 뼈저리게 체험하시고 조국애방의 피어린 행로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애국이었다. 우리 수령님처럼 자기 조국과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신분을 역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였다. 나라의 분열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은 곧 우리 수령님의 제일 큰 아픔이었다.

연일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남뎀들들에게 하지 못한 조국건설의 인사를 조국통일의 인사와 결해서 해야겠다고 분별의 력사만이 깊어가고있고 하시면서 조국애방이 지난날 자신의 당면과업이었다면 조국통일은 오늘날 자신의 당면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연일 한 번도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떼어놓고 생각해보신적이 없었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시며 백사만사우에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서 고간고하고 힘난한 가시덤불길을 뜻없이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을 관통하는 절대 불변의 신념이었다. 수령님께 있어서 조선이 하나인가 돌인가 있는것은 단순한 지리적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며 겨레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것은 5천년민족사에서 겪어 된 일시적인 국절이며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 우리 강토가 하나로 제정할, 재성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민족사의 필연적이어고 민족발전의 합법적요구이다.

조선은 하나다,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위대도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조국통일문제는 반드시 그 당사자인 우리 민족자신이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의 강한 민족자결정신과 애국의 의지가 비껴나지 않았다.

조선은 하나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은 우리 수령님의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제시하여온 모든 조국통일정책과 통일방안들은 조선은 하나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과 철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에 구두에 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조성된 통일문제해결의 복잡성과 국토분열의 장기화로 인한 겨레의 고통이 커가는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으며 하나의 조선로선으로 온갖 반동적인 사조와 내외분열의 일대들을 단호히 분쇄해버리시였다.

위대한 한생은 그가 쌓은 업적으로 하여 빛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시어 통일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자주의 궤도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해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원칙을 확립하시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지난 시기 조국통일문제를 보는태도 사상과 리념, 정경이 각이한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이 혼잡되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분열은 제2차 세계대전시 끝난 이후 쓰끄민과 대결의 산물인것만족 국적문제로서 령강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국통일문제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체제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나라의 통일문제가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문제라고 떠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국평에 38°선이 가로놓이고 북과 남이 상반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엄숙한 정세속에서 우리 나라의 분열의 근원과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라는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며 100년에 걸쳐 집요하게 추구해온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북과 남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로 규정 해주시였다.

민족문제의 본질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려면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사업이다. 자기 민족을 투쟁한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오직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고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는 민족의 어버이, 민족의 영웅만이 감당할수 있는 최대의 애국위업이다. 시대와 불종의식으로부터 민족자주

의식에서의 역사적 전환, 이것은 어떤 기적적변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명역에서 일어난 국적인 사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자주신념과 의지, 현명한 통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은 우리 민족이 오늘날 레일도 변함없이 여섯째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백색의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마련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외세의 간섭을 쫓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실현의 근초석이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집은 사상 루각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민족모두가 함께 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튼튼한 초석이 될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원칙이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 (1972)년 5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북과 남은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하지 말고 싸움으로 해결할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하며 모든것을 민족단결을 위한 방향으로 출발하자는 세가지 근본원칙을 합의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 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로 하여 주제 6 (1972)년 7월 4일 마침내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

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공식발표되었으며 이것은 내외의 진취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온 겨레는 조국통일위업문제에 대한 견해를 일치시키고 행동통일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명령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투쟁의 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의존립장에 대한 민족자주립장의 승리와 대결전쟁론에 대한 평화통일론의 승리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였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한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그 밑뿌리는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이 저지는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의 뚜렷한 중시 더우기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안은 통일국가의 견모와 그 구체적실현방도를 환히 밝힌 통일국가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방도를 정하는데서 인제나 기성의 방식이 아닌 정황을 모방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 식을 주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병합 또는 체제단일화하는 방식의 기존방식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저해로 될수 없다고 보시고 우리 식 방법으로 하는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를 창립하는것이라고 확정 하시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이 명시되어있다.

길은 개척해나갈수 있는 투쟁의 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의존립장에 대한 민족자주립장의 승리와 대결전쟁론에 대한 평화통일론의 승리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였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한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그 밑뿌리는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이 저지는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의 뚜렷한 중시 더우기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안은 통일국가의 견모와 그 구체적실현방도를 환히 밝힌 통일국가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방도를 정하는데서 인제나 기성의 방식이 아닌 정황을 모방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 식을 주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병합 또는 체제단일화하는 방식의 기존방식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저해로 될수 없다고 보시고 우리 식 방법으로 하는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상 온 겨레의 단합실현을 기본을 두고 조국통일에 대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도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헤쳐 나가시였다. 진민족이 하나로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애국의 지론이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으로, 민족통일을 조국통일의 천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명도하시던 나날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민족대단결에 관한 과학적인 원리가 집대성된 대백과사전이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애국투쟁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헌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동 일행들이 구도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애국유산이 있기에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끝바른 길을 따라 억척자주정신을 단결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모든것을 부종시키는 것들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갔다.

통일국가의 창립은 온 민족의 단결을 전제로 한다. 나라의 분열과 북과 남에 오메대한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존재하고있고 민족을 구성하는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 리해관계와 요구도 각이하다. 이러한 특수한 북남관계에서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할기 위해서는 민족성원들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된 리념을 찾아내야 하며 그 리념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정신적 측면에서 민족단합의 공동분모는 조국,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는

온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태양

인제나 햇빛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

온 태양민족의 환생을 안아온 영광의 개천시대였다. **《한평생 오로지 겨레와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영웅이시며 새 세계가 청춘하는 영웅이시요 위인이다. 나는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김일성동지님을 잊어본적이 없다. 생각할수록 우리 겨레가 일어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명수로 모셨다는가를 다시금 더욱 세무로 절감하게 된다.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동지님은 이남민족의 마음에 영원한 태양으로 빛을 뿌린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님》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민족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위업을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남북적성 정상, 사회단체대표자 면담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의 눈심과 열렬한 애국심, 숭고한 당당에 매혹된 남조선의

있는 가장 훌륭한 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단

계게 말씀하시며 온 겨레가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잠 못 드시고 통일의 렬명을 불려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현시지도의 길에서도,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해 심려하시면서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보내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으로 승화되어 더욱 세차게 분출하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사상과 명도, 인품이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님에 필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님! 그의 존엄은 태양의 존엄이다. 그는 존엄그대로 한생을 태양의 모습으로 빛나신 위인 중의 위인, 20세기의 태양이시였다.》라고 웨친 제주의도의 한 통일운동가의 가슴속에도, 《그이의 튼튼한 모습을 비출 때면 마치도 김일성동지님을 만나 뵈는것과 같은 느낌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운동을 기어이 관철하시기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또 한분의 민족의 태양이시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들에 실린 이 글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들이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빛나고 있는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의 탁월한 업적은 력사와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는 법이다.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본사기자 김현철

은 사랑과 덕망으로 온 겨레를 따사로운 한몸에 안아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

남녘인민들은 새얼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안고 그이의 업적을 소리높이 찬송하고있다.

남조선의 력사학교수 김성봉은 《우리는 태양민족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짐없는 경모의 정을 이렇게 격조높이 퍼쳤다.

《김일성동지님은 우리 단군민족을 부활시켜 민족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신 현대조선의 건국조이시고 태양민족의 원시조이시다. 우리 민족은 그분을 모시기 됴으로써 태양민족의 고고성을 울리며 새로운 운명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바로 우리 민족은 그분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민족생명의 팡봉을 받아안고 그분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대전선으로 조국해방을 맞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제시하신 인민위전의 건국로선으로 현대조선건립의 세 력사를 펼쳐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단군일시조까지 찾아주시므로써 우리 민족은 온 세계에 태양민족의 현대사와 함께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말그대로 김일성시대에는 새로운 현대조선의 탄생,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들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만마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결심으로 남조선당국에 특별제안을 보냈다.

특별제안은 북남관계를 전쟁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밝혔다.

7.4 공동성명이 채택된

42쪽을 계기로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서 채택된 모든 성명, 선언들과 합의를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금 확약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연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서 활발하게 벌어질 여러가지 교류와 접촉의 사전준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란을 적체한 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는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부를 적을뿐아니라 올해 8월 미국과 함께 벌리게 된 《유지프 리엄 가디언》합동사언습계

회를 즉시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환구시보》, 몽골의 《조민일보》, 캄보디아의 《프록 손데포》,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 뉴스》, 브라질신문 《오라 도 브보》,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투》, 벨기에 신문 《노비니》, 프랑스인 신문 《앵 미뉴스》와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

6.25-7.2 2만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6.25-7.2 27만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국의 련대성집회가 6월 26일과 30일 무바, 벨기에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무바 라비오 팔라우 소 장관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와 맞서 자주권을 걸걸히 수호하고있는 영웅적인민이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침략행동을 끊임없이 강행하고있다.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꾸바인민은 조선인민이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7월과 더불어 억세여지는 신념

그리움의 대하인양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남녘의 민심이 뜨겁게 끓어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을 이끌어주시고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환한신태양의 미소는 남녘인민들속에서 한없는 그리움과 호모오모게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제일먼저 달려가 드려드려다섯이 글의 내용이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평생 조국해방의 혈전만리길, 조국통일의 험난한 길을 헤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저 그 간절한 소망이 실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남녘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스조흔히 인자로운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절세위인들의 영생을 바라는 마음은 남조선의 한 화초집인의 경정인된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화초를 구경하려고 찾아온 동료들에게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지금 그리움의 대하를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명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김일성동지님과 김정일영도자님 같은 그런 위인은 없다. 통일만 되면 나는 선창으로 통일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대륙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모리타리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타지지가 6월 27일 제23차 아프리카대륙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대륙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식량안전과 농업의 현대화가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고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업적봉도를 목격하며 그다란 존경을 표하고있다.

진정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저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지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라고 진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남녘겨레의 고결한 마음은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운동을 받들어 기어이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신념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라고 진정을 터놓았다.

남녘의 각계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모시도록 하신것을 보면서 대원수님들을 지극히 받들어 모시는 위인의 고결한 충정에 감복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위인의 위업은

